

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진경 모의고사

정오표(국어 영역)

2019년 12월 4일 업데이트

출간 이후 발견되는 오류는 여기에 등재됩니다. 비고란에 적힌 수정본의 차례에 맞추어 교재와 비교 해주십시오.

쪽수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1	<p>2. (가), (나)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.9점]</p> <p>① '불이다'의 '불이'는 ㉠의 영향만 받는다. ② '혜택'의 표기는 ㉠과 ㉡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. ③ '여단이'는 한글 맞춤법 제6항의 적용을 받고, ㉠의 영향만 받는다. ④ '주례'는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라 [주례]로만 읽으므로 ㉠의 영향만 받는다. ⑤ '혜택'은 [혜택]으로 발음되더라도 한글 맞춤법 제8항에 따라 '혜택'과 같이 적는다.</p>	<p>2. (가), (나)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.9점]</p> <p>① '불이다'의 '불이'는 ㉠의 영향만 받는다. ② '자진'은 한글 맞춤법 제28항의 적용을 받고, ㉠의 영향을 받았다. ③ '여단이'는 한글 맞춤법 제6항의 적용을 받고, ㉠의 영향만 받는다. ④ '주례'는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라 [주례]로만 읽으므로 ㉠의 영향만 받는다. ⑤ '혜택'은 [혜택]으로 발음되더라도 한글 맞춤법 제8항에 따라 '혜택'과 같이 적는다.</p>	~2차 수정본
3	<p>9. <보기>의 문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4.1점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보 기></p> <p>분명히 빨리 오라고 했을 터인데 그는 자정이 다 되도록 오지 않았다.</p> <p>① 안긴 관형절 속에 인용절이 안겨 있다. ② 부사절로 안긴문장은 모두 2개가 있다. ③ 안긴문장의 절 표지를 있는 대로 찾으면, '-이', '고', '-을', '-도록'과 같다. ④ '자정이 다 되도록'은 전체 문장에 안긴문장이면서 절 내부에서 다른 절을 안고 있다. ⑤ '-(ㄴ)데'는 앞 절과 뒤 절을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주고 있는 연결 어미이다.</p>	<p>9. <보기>의 문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4.1점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보 기></p> <p>분명히 오늘 오라고 했을 터인데 그는 자정이 다 되도록 오지 않았다.</p> <p>① 안긴 관형절 속에 인용절이 안겨 있다. ② 부사절로 안긴문장은 모두 1개가 있다. ③ 안긴문장의 절 표지를 있는 대로 찾으면, '-이', '고', '-을', '-도록'과 같다. ④ '자정이 다 되도록'은 전체 문장에 안긴문장이면서 절 내부에서 다른 절을 안고 있다. ⑤ '-(ㄴ)데'는 앞 절과 뒤 절을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주고 있는 연결 어미이다.</p>	~2차 수정본
5	<p>16. <보기>의 시나리오에 나타난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.3점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보 기></p> <p>S#13. 늦은 밤 거실 가족이 다 함께 TV를 보고 있다. 어머니: 지금이 몇 시지? 아들: 앗. 벌써 12시네요. 이만 자야겠어요. 어머니: 그래. 어서 자려무나.</p> <p>S#16. 밤 12시 현관 아버지, 시계와 현관문을 계속 번갈아본다. 도어락 열리며 딸 들 어온다. 아버지: 지금이 몇 시지? 딸:</p> <p>① 언어적 맥락에서 볼 때, S#13의 '지금'은 자정이다. ② 상황 맥락에서 볼 때, S#13의 '어머니'는 '아들'에게 어서 잘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③ S#13에서 '어머니'가 맨 처음에 한 발화는 발화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불일치하는 완곡어법에 해당한다. ④ S#16에서 '아버지'가 한 발화의 명목상 내용과 '아버지'가 말하고자 하는 실제 의미는 다르다. ⑤ 사회·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, S#16에서 '딸'이 '아버지'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질책하는 말투임을 알 수 있다.</p>	<p>16. <보기>의 시나리오에 나타난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.3점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보 기></p> <p>S#13. 늦은 밤 거실 가족이 다 함께 TV를 보고 있다. 어머니: (걱정하는 말투로) 지금이 몇 시지? 아들: 앗. 벌써 12시네요. 이만 자야겠어요. 어머니: 그래. 어서 자려무나.</p> <p>S#16. 밤 12시 현관 아버지, 시계와 현관문을 계속 번갈아본다. 도어락 열리며 딸 들 어온다. 아버지: 지금이 몇 시지? 딸: (괴송해지는 표정을 지으며) 늦어서 죄송해요.</p> <p>① 언어적 맥락에서 볼 때, S#13의 '지금'은 자정이다. ② 상황 맥락에서 볼 때, S#13의 '어머니'는 '아들'에게 어서 잘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③ S#13에서 '어머니'가 맨 처음에 한 발화는 발화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불일치하는 완곡어법에 해당한다. ④ S#16에서 '아버지'가 한 발화의 명목상 내용과 '아버지'가 말하고자 하는 실제 의미는 다르다. ⑤ 사회·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, S#16에서 '딸'이 '아버지'에게 하는 말로 보아 아버지가 질책하는 말투로 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</p>	~2차 수정본